

구약논찬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정 일승(중앙신대) 하갈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33

본 연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란 등장인물의 묘사방식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하갈의 이야기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읽을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하갈이 기존의 전통적 해석이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장애물, 약자 또는 희생양이 아니라, 내러티브상의 모티프와 전형적 사건들을 아브라함과 공유하는 영웅적인 인물임을 밝힌다.

Chung, Il Seung Is Hagar the Weak or the Victim? 33

하갈은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정 일승 | 중앙신대

1. 들어가는 글

하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읽거나,¹⁾ 또는 역사비평적인 시각에서 하갈의 이야기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라는 배경에서 읽어왔다.²⁾ 그 외에도 하갈 내러티브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 지대를 벗어나 남쪽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기원론적인 이야기(etiological story)로 보는 관점도 있다.³⁾ 하갈의 입장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었지만⁴⁾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하갈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는 해석, 그리고 하갈을 민족, 계급, 성이라는 측면에서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약자 혹은 희생양으

1) Dixon Sutherland, "The Organization of the Abraham Promise Narrative," *ZAW* 95 (1983), 340쪽.

2)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72), 192쪽; E. A. Speiser, *Genesis*, (Anchor Bible 1) (Garden City: Doubleday, 1985), 119-120쪽.

3) Claus Westermann, John J. Scullion (tr.),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34-235쪽.

4)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로 보는 해석이 많아지고 있다.⁵⁾ 페미니스트 비평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하갈이란 인물에 대해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갈을 가부장제 사회의 연약하고, 학대 받은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신학자에 의해 여성인 하갈의 내러티브 역할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창 16장과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를 페미니스트 비평의 시각으로 읽은 대표적인 학자로는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이 있으며 국내에서 페미니스트 비평 또는 하갈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갈 내러티브를 해석한 학자로는 이 경숙, 유 연희, 왕 대일, 박 종수 등이 있다.⁶⁾ 트리블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방인 여종인 하갈이 이용당하고 학대를 받고 버림받는, 힘없는 약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트리블은 창 16장이 하갈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하갈의 모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부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라의 역할마저도 축소시키고 있으며,⁷⁾ 하갈이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용당하고, 억압받고, 그리고 버림까지 받는 경험을 하는 최초의 여성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하갈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근시안적이며 하갈의 역할을 단순히 이방인 여종으로만 이해하려는 피상적인 읽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5) Trevor Dennis, *Sarah Laugh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Sharon P. Jeanson, *The Women of Genesis: From Sarah to Potiphar's Wife*, (Minneapolis: Fortress, 1990);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R. Weems, *Just a Sister Away: A Womanist vision of Women's Relationships in the Bible*, (San Diego: LuraMedia, 1988). 물론 페미니스트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베일리(W. Ann Bailey)는 하갈을 희생자라기보다는 새 인생을 향해 나아간 생존자로 이해한다. W. A. Bailey, "Hagar: A Model of an Anabaptist Feminist?,"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68 (1994), 219-228쪽을 참조.

6) Trible, 윗글 (1984); 이 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37권 2호 (1993), 158-165쪽; 유 연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 16: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 (창 16장과 21장)," 『구약논단』 23집 (2007), 101-117쪽; 왕 대일, "하갈의 엑소도스 (창 16:1-16)," 『세계의 신학』 11호 (1991), 120-146쪽; 박 종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하갈이야기 (창 16:1-14)," 『구약논단』 16집 (2004), 7-33쪽. 박 종수는 하갈이야기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성서학과 심리학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한다. 창세기 연구에서 심리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신 방법론에 속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성서학자보다는 심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7) Trible, 윗글 (1984), 19쪽.

8) 윗글, 9쪽.

하갈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등장인물과는 달리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족장들과 가장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특히 등장인물의 묘사방식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공통점이 많은 등장인물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씨(צֶרֶף, 제라)가 큰 민족이 되리란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문학적 모티프이다.⁹⁾ 하갈이 아브라함 및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과 중요한 모티프를 공유한다면, 하갈이란 인물은 창 16장과 21장뿐만 아니라 족장내러티브(창 12-50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갈이란 인물이 내러티브에서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할 때 장애물, 약자, 또는 희생양으로 보았던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창세기에서 내레이터(narrator, 화자)가 묘사하고 있는 하갈은 아브라함과 필적할 만한 영웅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비평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인한 여성이며, 아브라함에게는 호감 가는 아내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묘사방식에 있어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사한 부분이 많은지 설명할 것이다. 첫째로 하갈과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사건들(type-scenes)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갈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관련 있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비교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하갈의 역할을 사라의 역할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동안 주로 약자와 희생양의 이미지로만 치부되었던 하갈의 이미지에 대해 좀더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알터(Robert Alter)는 성서 이야기에서 반복 구조를 이루는 장치로 주도적인 단어(Leitwort), 모티프(Motif), 주제(Theme), 행위의 연속(sequence of actions), 전형적인 사건(type-scene)의 5가지 범주를 지적한다. 모티프의 반복은 구체적 이미지, 감각적 특성, 행위 또는 객체가 특별한 내러티브를 통해 계속 나타난다고 보았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95-96쪽 참조.

2. 하갈과 전형적인 사건(Type-Scenes)¹⁰⁾

하갈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형적 사건으로는 ‘수태 고지’(annunciation)와 ‘광야에서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성서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경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조(前兆)와도 같은 사건들이다.

1) 수태 고지(annunciation)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창 16: 10-12).

이 구절은 ‘수태 고지’로 볼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면서¹¹⁾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형적 사건인 수태 고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 (1) 도입부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다.
- (2) 임신과 아들의 출생을 선포한다.
- (3)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한다.
- (4)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한다.¹²⁾

10) ‘전형적인 사건’(type-scene)의 개념은 알터(Robert Alter), *윗글*, 47-62쪽에 소개되어 있다. 전형적 사건은 원래는 호머(Homer)의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는 장면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영웅의 경력 속에서 전조의 동기를 발생시키는 삽화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사건의 예로는 영웅의 탄생과 관련된 수태 고지, 우물가의 약혼, 광야의 시련 등이 있다.

11) 성경의 수태 고지로는 다음 분문을 참조하라.

창 16: 11-12; 17: 19; 18: 1-18; 삿 13: 3-5; 왕상 13: 2; 대상 22: 9-10; 사 7: 14-16; 눅 1: 11-17, 31-32.

12) Westermann, *윗글*, 245쪽.

성경에서 수태 고지는 통상 영웅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천사)가 ‘임신과 태어날 아들의 미래’에 대해 전한다(삿 13: 3-5; 눅 1: 31-32). 특히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리는 이야기는 하갈의 ‘수태 고지’와 유사해서 데니스(Trevor Dennis)는 하갈을 “구약의 성모”라고 불렀다.¹³⁾

하갈의 ‘수태 고지’는 마리아의 ‘수태 고지’와도 유사점이 있지만, 수태 고지라는 전형적 사건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하갈과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은 더욱 흥미롭다. 창 16장의 하갈의 수태 고지와 창 17장의 아브라함의 수태 고지 사이의 유비(類比, analogy)를¹⁴⁾ 살펴보자.

전형적 사건의 요소	하갈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창 16: 7)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 17: 1)
임신과 아들의 출생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창 16: 11)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창 17: 19)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창 16: 11)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 17: 19)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창 16: 12)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 19)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창 16장의 하갈의 수태 고지와 창 17장의 아브라함의 수태 고지는 하나님의 사자, 임신과 아들의 출생, 아들의 이름, 아들의 미래에 대한 고지,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공유하는 등 유사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13) Dennis, 윗글, 68쪽.

14) 내러티브 유비(narrative analogy)는 두 이야기들을 주도적인 단어, 모티프, 주제 등의 반복이나 대조(contrast)를 통해 서로 공명시켜 관련을 갖게 만드는 문학적 기법이다.

이러한 본문 간의 유비 외에도 하갈과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 하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언어를 듣게 되는¹⁵⁾ 오직 네 사람 중 하나인데, 이런 그녀가 이집트에서 온 종의 신분이며 여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¹⁶⁾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받은 ‘후손에 대한 약속’ (창 16: 10; 창 21: 18)은 하갈을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연결시킨다. 내레이터가 그려내고 있는 하갈의 모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견줄 만한 영웅적이고, 마치 이집트의 여족장과 같은 인물이다.¹⁷⁾

창 16장 10절에서 여호와와 사자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했다. 여기서 ‘네 씨’는 바로 하갈의 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갈의 역할이 족장들의 아내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살펴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족장의 씨(창 15: 5; 22: 17; 26: 4; 28 :3)이지, 그 아내들의 씨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갈 내러티브와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만 발견되는 ‘씨에 대한 약속’과 이것과 짝을 이루는 수태 고지라는 전형적 사건까지 살펴볼 때, 내레이터가 하갈을 족장과 유사한 인물로 묘사했고 의도적으로 그녀와 아브라함을 문학적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약속의 언어를 들었으나 하갈은 직접 하나님을 뵈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약속과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암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와 사자’로부터의 약속과 축복인 것처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16) Dennis, 윗글, 67쪽.

17) 그러나 데니스(Trevor Dennis) 등 일부 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갈에게 대해 이처럼 높은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트리블(Phyllis Trible)은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중요한 언약적인 정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양면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에 장쏬느(Sharon P. Jeansonne)는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이 언약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이 되리란 약속들(창 13: 16; 17: 2; 22: 17)을 상기시키며 내레이터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았다.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을 가치 있게 평가한 학자로는 야렐(R. H. Jarrell)이 있다. 야렐은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을 ‘여성에게 상응하는 언약’(언약의 “female counterpart”)으로 보며, 하갈의 경험이 여호와와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모든 성경의 여인들 사이에 미래의 연합을 위한 ‘원형적인 언약’(prototype covenant)이라고 믿는다. Trible, 윗글 (1984), 16쪽; Jeansonne, 윗글, 46쪽; R. H. Jarrell, “The Birth Narrative ad Female Counterpart to Covenant,” *JSOT* 97 (2002), 12쪽을 참조하라.

2) 광야에서의 위협

하갈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사건은 ‘광야에서의 위협’이다.¹⁸⁾ 알터(Robert Alter)는 목숨을 위협하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에게 먼저 일어나고(창 21장) 그 이후에 그의 작은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창 22장), 두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구절 등 내러티브 모티프의 연계성을 연구함으로써 두 이야기의 복잡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그는 창 21장을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몰린 절박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창 22장은 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리는 명령을 받은 고뇌에 찬 아버지의 이야기로 보았으며, 두 이야기 모두 위급한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있어 아이가 무사할 것이라고 선포한다고 지적한다.²⁰⁾

수대 고지리는 전형적 사건처럼 창 21장과 창 22장에 등장하는 하갈과 아브라함의 ‘광야에서의 위협’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창 21장과 창 22장의 유비를 관찰한 학자로는 웬햄(Gordon Wenham), 레비앙(Curt Leviant), 알렉산더(T. D. Alexander), 라이크(Larry L. Lyke), 임 동원 등이 있다.²¹⁾ 이 중에서 웬햄의 분석을 토대로 창 21장과 창 22장의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중요한 유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18) 알터(Robert Alter)는 하갈이 등장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사건을 “목숨을 위협하는 광야에서의 시험” (the life-threatening trial in the wilderness)라고 부른다. Alter, *윗글*, 181쪽.

19) *윗글*, 181쪽.

20) *윗글*, 181쪽.

21)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Waco: Word, 1994), 99-100쪽; Curt Leviant, “Parallel Lives: The Trials and Traumas of Isaac and Ishmael,” *BRev* 15 (1999), 20-25쪽; T. D. Alexander, “A Literary Analysis of the Abraham Narrative in Genesis,” (Ph.D. diss.),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1982), 60쪽; Larry L. Lyke, “Where Does the Boy Belong? Compositional Strategy in Genesis 21: 14,” *CBQ* 56 (1994), 637-648쪽; 임 동원, “창 21, 8-21과 창 22, 1-19에 나타난 반복 (Repetition) 연구: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 『신학과 현장』 2집 (1992), 103-122쪽을 참조하라.

22) Wenham, *윗글* (1994), 99-100쪽.

창 21: 8-21	창 22: 1-19
<p>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배제를 명령하심(22: 12-13) 아침에 일찍 일어남(21: 14) 음식과 물을 취함(21: 14) 여행(Journey)(21: 14) 죽기 직전의 이스마엘(21: 16)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부름(21: 17) 두려워하지 말라(21: 17) 하나님께서 들으셨다(21: 17)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21: 18)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심 (21: 19) 그녀가 아이에게 물을 준다(21: 19)</p>	<p>하나님께서 이삭의 희생을 명령하심(22: 2) 아침에 일찍 일어남(22: 3) 번제를 위한 재료를 취함(22: 3) 여행(Journey)(22: 4-8) 죽기 직전의 이삭(22: 10)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부름(22: 11) 하나님을 경외하다(22: 12)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들었다)(22: 18)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22: 17)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솟양을 봄(22: 13)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대신에 솟양을 번제로 바침(22: 13)</p>

웬만큼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유비관계를 발견했지만, 이러한 유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학자들이 관찰한 이러한 유비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본문의 범위와 내용 외에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더 많은 유비가 존재한다.

하갈-이스마엘	아브라함-이삭
<p>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음(16: 15) 목말라하는 이스마엘을 차마 보지 못하는 심정(하갈의 모성애)(21: 16) 하갈이 브엘세바 들을 방황(21: 14) 하갈이 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 부름(16: 14)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함(21: 21)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함께 장사함(25: 8-9) 이스마엘이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 돌아감(25: 17)</p>	<p>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지음(21: 2-3) 이삭을 죽여야 하는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심정(아브라함의 부성애)(21: 4)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함(22: 19)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부름(22: 14)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함(24장)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함께 장사함(25: 8-9) 이삭이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 돌아감(35: 29)</p>

위의 예 중에서 하갈이 이집트 땅에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아내를 구해줌으로써(창 21: 21) 가족의 미래를 확고히 하는 강인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며느리까지 직접 구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하갈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의 족장들의 행동 방식과 닮은 것으로 하갈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자녀들이 아내를 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서 고향 땅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도록 했고(창 24장), 이삭은 야곱을 직접 보내면서 아내를 구하라고 한다(창 28: 1-2).

이와 같은 하갈과 족장들의 유사한 행동방식은 하갈의 또 다른 족장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하갈은 성경에서 아들의 아내를 직접 구하는 유일한 여성 인물이다. 리브가의 경우 이삭이 야곱에게 그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뱃단아람으로 보낼 때 그 일의 배후에 있긴 했지만, 하갈 외에 그 어떤 여인도 아들을 위해서 직접 아내를 구해준 경우는 없다.²³⁾ 하갈이 먼저 이런 행동을 한 이후에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은 또다시 하갈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⁴⁾

3. 하갈의 땅, 하갈과 아브라함의 지리적 연관성

하갈과 아브라함의 문학적인 연관성은 단지 전형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갈의 전형적 사건이 아브라함의 전형적 사건과 서로 병행이 되었던 것처럼,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갈은 창 16장 3절에서 ‘이집트’ 여종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웬함, 궁켈(Herman Gunkel) 등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녀를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foreigner) 또는 ‘외부인’(alien)으로 규정한다.²⁵⁾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

23) Dennis, 윗글, 82쪽.

24) 트리블은 하갈이 며느리를 직접 구하는 행동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유비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트리블은 하갈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저항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Tribble, 윗글 (1984), 27쪽 참조.

25) Wenham, 윗글 (1994), 13쪽; Hermann Gunkel, Mark E. Biddle (tr), *Genesi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84쪽; Dennis, 윗글, 65쪽; Jeansonne, 윗글, 4쪽.

했던 지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갈이 현대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머나먼 곳에서 온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없으며 하갈과 관련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은 하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1) 이집트²⁶⁾

창 16장 1절에서 내레이터는 하갈을 이집트 여종(**אֲרָמִי** 쉬프하)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 본문에서 종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창 15: 2; 39: 13, 16), 하갈의 경우는 내레이터가 직접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²⁷⁾ 내레이터가 하갈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들의 종들의 이국적인 측면 (foreignness)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강조점으로 읽을 수 있다.²⁸⁾ 본문을 면밀하게 읽는 독자라면 창 16장에서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창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때 이집트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2: 10)

위의 예를 포함하여 창세기에서 이집트는 ‘기근으로부터의 피난처’(창 12: 10; 42: 1, 2)로 묘사된다.²⁹⁾ ‘피난처’ 또는 ‘안식처’로서의 이집트의 이미지는 창세기에

26) 본 연구에서는 ‘애굽’ 대신에 ‘이집트’라는 현대적 지명을 사용할 것이다.

27) 다른 등장인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로부터 언급이 된다. 예를 들어, 창 15장 2 절에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온 외부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요셉 이야기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키면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는(창 39: 14, 17 참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창 39장 13, 16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의 이국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8) 야미트(Yairah Amit)는 내러티브 안에서 특정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place aspect is always functional, and understanding its function in the story leads to a deepe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experienced reader will examine what has been mentioned, how it is mentioned, how many times, where and to what purpose.”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125쪽을 참고하라.

29) 그 외에도 이집트는 함의 후손으로(창 10: 6), 하갈의 고향으로(창 16: 1; 21: 9), 이스마엘이 거주하고 있는 영역과의 경계로(창 25: 18),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한 땅으로(창 26: 2), 이스라엘 족속이 요셉을 통해 이동했던 곳으로(창 47: 27) 언급된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독자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창 12: 7) 주저 없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정착하려고 떠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³⁰⁾ 여기에 내러티브 비평의 관점에서 독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창세기에서 이집트란 곳은 족장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장소였다는 것이다. 족장들은 이집트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했다. 당시 족장들에게 이집트에 거주하는 것이 노예 신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예외 없이 이집트에 이 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기근을 피해 그 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창 12: 9) 그랄을 거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음을 암시한다(창 26: 1-2). 이처럼 이집트는 족장들에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낙원과 같은 특별하고 매력 있는 곳이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한 것을 볼 때, 이집트가 족장들뿐만 아니라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 14: 12; 16: 3; 17: 3 참조).

기근이 있을 때마다 하갈의 고향으로 피난을 갔던 족장들은 이집트를 ‘굶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 즉 자신들의 ‘생명’과 연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에 대한 이와 같은 ‘생명’의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라는 사실은 하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불러일으킨다. 사라가 이집트 여인을 대리모로 선택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서 생명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생명의 기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라는 생명의 땅에서 온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내레이터는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그녀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땅으로부터 온 매력적인 외국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0)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287쪽.

2) 브엘세바

창세기에서 유명한 두 우물이 있는 장소는 ‘브엘세바’와 ‘브엘라해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브엘세바란 곳은 가나안에서 여러 사람이 방문했던 장소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곳이고(창 21: 22-34, 26: 22-33),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창 22: 1-19) 이후에 이삭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만났던 장소이며(창 26: 23-33, 46: 1-5) 그들과의 언약을 확증하신 곳이다. 다시 말해 브엘세바는 ‘족장들의 성지(sacred place)’라고 볼 수 있다. 족장내러티브에서 다른 그 어떤 장소도 삼 대를 거쳐 이처럼 많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없다. 삶과 만남의 장소였으며 족장들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곳, 그 곳이 바로 브엘세바이다.

그런데 독자가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아니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하갈이다. 브엘세바는 바로 하갈이 영웅의 전형적 사건인 ‘광야에서의 위험을 경험한 곳이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떠돌았고, 가지고 간 물이 떨어져서 그녀가 희망을 버리려고 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 곳에서 만나 주셨고 샘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신성한 장소로서 족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지만, 주석자들은 하갈의 브엘세바에 대해 부각시키지 않았다.

하갈의 브엘세바에 대한 학자들의 무관심은 하갈이 길을 잃어서 실수로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르나(Nahum M. Sarna)는 “짐작하건대 하갈은 이집트로 향했지만 길을 잃었다”고 말했고, 트리블도 창 21장 14절의 **נָחַל**(타아/방랑하다)라는 동사가 불확실성과 목적지를 향한 방향 감각의 상실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면서, 하갈이 억압 받던 땅을 떠난 것을 탈출(exodus)이 아닌 유배(exile)로 보았다.³¹⁾ 트리블은 하갈을 희생양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지나치게 몰두했는지 **נָחַל**이라는 동사의 용례가 반드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랑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견해를

31) Nahum M. Sarna, *Genesi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47쪽; Tribble, *읽기* (1984), 23쪽.

따라 하갈의 이미지를 연약하고, 미숙하여 그녀의 고향으로 가는 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축소하는데 머무른다.³²⁾ 창 20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 (וַיֵּלֶךְ, 히트우)고 고백할 때 브엘세바에서의 하갈과 동일하게 동사 ִלָּךְ로 아브라함의 방랑이 묘사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 버려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주석은 없다. 하갈이 길을 잃어 버려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하갈을 연약하고 어수룩한 인물로 여기는 해석자의 편견에 의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갈에게 브엘세바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이었고, 하갈은 길을 잃어버려서 실수로 브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다. 창 21장과 창 22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유사점은 하갈의 브엘세바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에 유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브엘세바 광야에 있었고 (창 21: 14),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의 시험 이후에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한다(창 22: 19). 하갈에게도 브엘세바는 특별하고 신성한 곳이며, 브엘세바라는 장소를 통해 하갈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내러티브상의 연결점을 볼 수 있다.

3) 브엘라헤로이

브엘세바와는 달리 브엘라헤로이는 하갈과 좀더 관련이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창 16장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을 만난 곳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선호했던 거주지였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반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와 유사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브엘라헤로이라는 지명은 하갈이 이곳의 이름을 지은 이후로 구약에서 오직 창세기에만 등장하며, 이삭은 하갈을 제외하고 창세기에서 브엘라헤로이와 관련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창 24:62)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창 25: 11)

32) 그녀는 하갈의 wandering(방랑)을 창 37: 15; 시 107: 4; 119: 176; 사 53: 6 그리고 욥 38: 41과 비교하지만, 창 20장 13절과는 비교하지 않았다. Trible, 윗글 (1984), 34쪽의 미주 60번 참조.

아케다 사건(창 22: 1-19)³³⁾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브엘세바에 머물렀고 이삭은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을 떠나 브엘라헤로이로 이동한다. 내러티브 전개에 의하면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리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을 당시에 브엘라헤로이에 살고 있었고(창 24: 62),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이삭이 그 곳에서 다시 살기 위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창 25: 11).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를 선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주로 거주했다는 사실은 하갈의 고향인 이집트와 멀지 않은 네게브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집트와 가까운 가나안의 남쪽 지방, 특히 하갈의 성지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브엘라헤로이의 중요성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다. 창 16장에서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창 2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모두 이름을 짓는 행위로 마무리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여호와 이레’(יְהוָה אֵלֵי: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라고 부르는 반면에,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 로이’(אֱלֹהֵי לִי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라는 별칭으로 부른다(창 16: 13).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갈을 광야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내러티브의 전개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하갈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언으로 여겨졌던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원조가 아니며, 하갈의 ‘브엘라헤로이’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창 22: 14)과 야곱(창 28: 16-19; 창 32: 30)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한 이름을 짓는 하갈의 행동은 족장들과 유사한 것으로, 추후에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이름 짓는 행동의 원형이 된다.

‘브엘라헤로이’와 ‘여호와 이레’의 신학적 함의는 유사하다. 문자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보이실 것이다”이고, ‘브엘라헤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샘/우물”이란 뜻이다.³⁴⁾ 따라서 이 두 이름 모두 하나님께

33) ‘아케다’(אֶקֶדָה)는 랍비 전통에서 창 22장 1-19절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34) 창 22장에서 ‘여호와 이레’는 장소에 대한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엘 로이’가 하갈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별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도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S. Nikaido, “Hagar and Ishmael as Literary Figures: An Intertextual Study,” VT 51 (2001), 225쪽을 참고하라.

서 ‘보신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갈과 아브라함은 각각 샘과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일한 경험을 한다. 이와 같이 내레이터에 의해 하갈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경험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하갈과 사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여자인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사라의 역할을 하갈의 역할과 비교해보자. 창 16장과 창 21장에 나타난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야기는 남성 독자보다 여성 독자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본문이다. 여주인과 여종의 갈등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분명하게 사라 또는 하갈과 동일시하거나, 편을 들거나 또는 그 갈등 관계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트리블, 니디치(Susan Niditch) 등의 학자는 여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라는 잔인하게 하갈을 괴롭혔고 외국인 종의 신분인 하갈을 피해자로 보는데 이는 보편적인 페미니스트 비평의 입장이다.³⁶⁾ 그러나 하갈과 사라는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본처인 사라보다 더 호감을 주는 아내(ἡγάπη)였³⁷⁾ 창 16: 3)였고 사라와 하갈 중에 오히려 ‘사라’가 더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전통적인 창세기 주석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웬햄(Gordon J. Wenham)과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창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리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가 사리를 아내로 취하게 된 사건에 대해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나름대로 배우자 사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다.³⁷⁾ 웬햄과 베스터만 등 대부분의 창세기 주석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대해 좀더 단순하고 명료한 해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하다.

내러티브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종종 정서적, 육체적으

35) 유 연희, *읽글*, 102쪽.

36) Tribble, *읽글* (1984), 9쪽; Susan Niditch, "Genesis," Carol A. Newsom/Sharon H. Ringe (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2), 18쪽.

37) Wenham, *읽글* (1987), 288-89쪽; Westermann, *읽글*, 164쪽. 물론 장쏜느(Sharon P. Jeanson) 등의 학자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장쏜느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단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아브라함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Jeanson, *읽글*, 16쪽 참고.

로 거리를 두고 있다. 창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리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녀는 바로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 창 16장에서 사리는 하갈의 임신 이후로 달라진 그녀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리에게 그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리의 이들을 통해 그를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창 17: 15-18). 하나님께서 직접 사리가 일 년 이내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창 18: 14; 창 17: 21 참조), 창 20장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사리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이 사리를 아내로 취하게 함으로써(창 20: 2) 사리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동이다. 창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었고(창 21: 22-34),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 이후에는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하게 된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리에 의해 쫓겨난 이후로 방랑했던 곳인 브엘세바로 간 것이다. 반면에 사리는 창 21장에서 이삭이 젖을 떼어 잔치를 하는 날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로(창 21: 8-21) 창 23장에서 헤브론에서 죽을 때까지(창 23: 1-2)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헤브론에서 사리가 죽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었는지는 모호하다.

트리블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기 위해 돌아가지만 사리는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트리블은 본문이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재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읽히며, 사리는 홀로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리를 애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보았다.³⁸⁾ 트리블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있지만, 필자는 트리블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창 23장 2절에서 사용된 **נסי**(보가다,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아브라함이 사리를 애도하기 위해 일부러 헤브론까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38) Phyllis Trible, "Genesis 22: The Sacrifice of Sarah," Alice Bach (ed.), *Women in the Hebrew Bible: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9), 286쪽을 참고하라.

창 23: 2	창 35: 27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가서(בָּקַרְבָּא אַבְרָם)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랏아르바의 마프레로 야곱이 가서 (בָּקַרְבָּא אִשָּׁק)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베스터만과 사르나 등 일부 해석자들은 이 본문에서 사용된 אִשָּׁק 라는 동사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³⁹⁾ 그러나 창 35장 27절에서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과 비교해보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유사한 언어를 포함해서 창 23장 2절과 동일하게 אִשָּׁק 라는 동사를 사용했지만, 이 경우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고 제시하는 주석은 없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분명히 헤브론이 아닌 다른 지역, 내러티브 문맥을 살펴보면 에델 망대(창 35:21)가 있던 지역 근처로부터 헤브론까지 이동해 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헤브론까지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족장내러티브에서 반복되는 ‘헤브론에서의 죽음’이라는 모티프이다. 족장들은 방랑자였지만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는데, 이 모티프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중에 야곱에게도 나타난다(창 23: 2; 25: 9; 35: 27-29; 49: 29-32). 이삭도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서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브엘라해로이로 돌아오는데, 이곳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살고 있던 곳이다(창 24: 62; 25: 9-11). 이처럼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모두의 죽음은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는 것과 그들의 친족이 그 곳까지 장례를 위해 여행을 떠나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전개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까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아브라함이 과연 사라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본문 상의 근거는 희박하다.

결정적으로 내레이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39) Westermann, 윗글, 373쪽; Sarna, 윗글, 157쪽. Wenham, 윗글 (1994), 126쪽;

언급하지 않는다.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는 그들이 아내를 사랑했다고 묘사되고 있다. 창 24장 67절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고 말한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니”로 묘사되고 있다(창 29: 18, 30).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 침묵한다.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 내레이터에 의해 아내들과의 성관계가 언급되어 있지만(이삭 24: 67; 야곱 29: 30),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성관계를 암시한 본문도 없다. 심지어 이삭의 출생도 사라가 임신했을 때 방문하신(ἔβη) 파카드) 이는 여호와이고 아브라함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⁴⁰⁾ 반면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경우는 내레이터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묘사하고 있다(창 16: 4).

웬함이나 베스터만의 해석과는 달리 내러티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좀 더 단순 명료하게 해석해볼 수 있다. 사실상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아니었으며, 아브라함은 사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스타인버그(Naomi Steinberg)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장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불임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가 될 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있었고 새 아내를 얻기 위해 사라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지적한다.⁴¹⁾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보내고 받게 될 지참금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 지참금으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아내를 구할 목적으로 아내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⁴²⁾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의 아내에 대한 지참금을 줄 수 있는 외부인들에게 가까이 보내고 있는데(창 12장, 20장), 이러한 행동은 아내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남편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40) 왕 대일은 창 18장 11절을 해석하면서 사라가 성생활의 즐거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사라의 임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자궁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에 의한 것으로, 말라버린 여인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사라의 임신을 해석한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왕 대일, “사라의 웃음과 하갈의 울음 (1),” 『세계의 신학』 13호 (1991), 61-65쪽을 참조하라.

41) Naomi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54쪽.

42) 윗글, 55쪽.

반면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는 단순히 자식을 낳아주기 위한 대리모 이상의 관계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본문 상의 근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창 16장에서 사라가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אִשָּׁה) 잇사(창 16: 3)로⁴⁴⁾ 주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 30장에서 라헬이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줘서 단을 낳는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사라만 유독 하갈이 임신한 이후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라헬도 사라처럼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했고, 라헬의 계획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반면에 사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웬함은 라헬이 사라와는 달리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기뻐했고, 사라가 동일한 방식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거부한 반면 라헬은 단을 진심으로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는 것을 지적한다.⁴⁵⁾ 라헬과 레아도 사라처럼 그들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자식을 얻었지만, 빌하와 실바의 경우는 임신을 한 후에 여주인을 경시했다거나 여주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암시가 없다. 실바의 경우는 임신했을 때 이미 레아에게 자식이 있었으므로 하갈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빌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라헬 대신 임신했기 때문에 하갈과 동일한 상황이다.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살펴볼 때, 독자는 빌라도 하갈처럼 그녀의 여주인을 경시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겠지만 빌하와 라헬 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즉, 빌하의 임신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이며 빌하의 여주인인 라헬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았다. 반면에 사라는 라헬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사랑 받는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갈의 임신은 사라를 대하는 하갈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사라는 하갈과의 라이벌 의식, 아브라함에게 격렬하게 불평을 할 만한 질투와 함께 여주인과 아내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
 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창 16: 5)

43) Calum Carmichael, *Women, Law, and the Genesis Tradi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9), 11쪽.

44) 개역성경에는 ‘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אִשָּׁה פִּלְגָמָה)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아내’(אִשָּׁה)로 주었다.

45) Wenham, *읽기* (1994), 245쪽.

이와 같은 사라의 분노에 대해, 라이스(Pamela T. Reis)는 그녀의 논문 “Hagar Required”에서 하갈이 임신을 한 이상 아브라함과 하갈이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는 없지만, 그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지속했으며 이것이 사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제안한다.⁴⁶⁾ 라이스는 창 16장 5절에서 사라의 말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불평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하갈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⁴⁷⁾ 라이스의 이와 같은 견해는 중세의 랍비 전통에 의존한 것이지만, 굳이 라이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라의 분노가 마치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갈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에 대해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사라의 분노를 고려해보면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라는 이 새로운 관계와 하갈의 임신이 사라에게 매우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고려해보면, 하갈은 족장들에게 매력적인 땅으로 여겨진 이집트에서 온 매력적인 여인이며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했던 아들을 선사한 여인이다.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 제거하려고 애썼던 사라보다는 내러티브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인 하갈을 편애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라의 분노는 자신에 대한 하갈의 태도 변화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하갈을 편애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창 16: 6)⁴⁸⁾ 하갈에 대한 처우를 사라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나 사라의

46) Pamela T. Reis, “Hagar Required,” *JSOT* 87 (2000), 85쪽.

47) 라이스(Pamela T. Reis)는 중세 히브리 학자 Rashi의 주장을 따라 창 16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인 **קָנְיָהּ**(우베네카)의 마소라 표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서 ‘당신’은 2인칭 여성형으로 (즉, 하갈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Reis, 윗글, 84쪽을 참조하라.

48)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스터만(Westermann)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이 놀랍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베스터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묘사된 인물이다. 베스터만과 달리 웬햄(Gordon Wenham)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갈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아브라함 나름대로 사라의 부드러운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갈을 보호하려는 행동처럼 보인다고 보았다. 반면에, 트리블(Phyllis Trible)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편애했을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증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모두에게 사실상 가해자의 입장이지만, 필자는 하갈보다는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거될 뻔 했던 사라가 오히려 더 피해자라고 본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창 21: 11)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창 21: 12)

비록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하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진 않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본문을 면밀히 살펴볼 때, 사라도 과연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는지는 의문이다.

결과적으로도 사라의 요구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창 25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들을 함께 장사한다.⁴⁹⁾ 만약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다면, 어떻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 준다.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재혼하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그두라가 사실은 쫓겨난 하갈이었다고 보고 있다.⁵⁰⁾ 랍비 문헌에서 사라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로 맞이하였다고 해석한 것처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⁵¹⁾

또한, 22장에서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내러티브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Westermann, 윗글, 241쪽; Wenham, 윗글 (1994), 9쪽; Trible, 윗글 (1999), 285쪽을 참고하라.

49) 창 35장 29절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함께 장사한다.

50) Genesis Rabbah 61: 4 참조.

51) 이러한 관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된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였

5. 나가는 글

창세기 주석이나 여러 연구를 통해 하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접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해석이 더 나은 해석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자의 당연한 과제는 하갈 내러티브에서 하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장애물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불필요한 이야기로 보았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하갈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했으나 민족, 성, 계급의 세 가지 억압과 학대를 받은 여인의 이야기로 읽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비평은 성경 본문이 남성의 경험과 관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하갈 내러티브도 남성이 기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고 남성의 경험과 가치 체계를 보편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지적한다.⁵²⁾

반면에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하갈 이야기는 강인한 여족장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위대한 족장들에게 필적할 만한 영웅적 인물, 아브라함이 호감을 가진 아내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내러티브상 많은 유비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유비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레이터는 내러티브 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짓는 등 다양한 하갈의 경험을 아브라함의 경험과 유사한

고 (창 28: 3),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다. 내레이터가 이스마엘 사람들을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들로 묘사한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요셉은 이제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한 것과 입장이 바뀌어 노예가 된 것이다.

52) 예를 들어, 버드(Phyllis Bird)는 구약은 “남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에게 의해 쓰여진 글들의 모음”이며 근본적으로 “남자의 책”이라고 규정한다. Phyllis A.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13쪽. 페미니스트 비평에 대한 논의로는 Cheryl J. Exum,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Gale A. Yee (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1995), 70쪽; 유 연희, 윗글 등의 논문을 참조하라.

방식으로 영웅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하갈의 이야기는 억압받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귀하고, 사랑받고, 축복 받은 이집트 여인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6. 참고문헌

- 박 종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하갈이야기(창 16:1-14),” 『구약논단』 16집 (2004), 7-33쪽.
- 이 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37권 2호 (1993), 158-165쪽.
- 임 동원, “창 21, 8-21과 창 22, 1-19에 나타난 반복 (Repetition) 연구: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 『신학과 현장』 2집 (1992), 103-122쪽.
- 유 연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 16: 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 (창 16장과 21장),” 『구약논단』 23집 (2007), 101-117쪽.
- 왕 대일, “하갈의 엑소도스 (창 16:1-16),” 『세계의 신학』 11호 (1991), 120-146쪽.
- _____, “사라의 웃음과 하갈의 울음 (1),” 『세계의 신학』 13호 (1991), 50-78쪽.
- Alexander, T. D., “A Literary Analysis of the Abraham Narrative in Genesis,” (Ph.D. diss.,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1982).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mit, Yariah,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 Bailey, W. A., “Hagar: A Model of an Anabaptist Feminist?,”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68 (1994), 219-228쪽.
- Bird, Phyllis A.,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Carmichael, Calum, *Women, Law, and the Genesis Tradi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9).
- Dennis, Trevor, *Sarah Laugh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Exum, Cheryl J.,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Gale A. Yee (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1995).
- Gunkel, Hermann, Mark E. Biddle (tr.), *Genesi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Jarrell, R. H., “The Birth Narrative and Female Counterpart to Covenant,” *JOT* 97 (2002), 3-18쪽.

- Jeansonne, Sharon P., *The Women of Genesis: From Sarah to Potiphar's Wife*, (Minneapolis: Fortress, 1990).
- Leviand, Curt, "Parallel Lives: The Trials and Traumas of Isaac and Ishmael," *BRev* 15 (1999), 20-25, 47쪽.
- Lyke, Larry L., "Where Does the Boy Belong? Compositional Strategy in Genesis 21:14," *CBQ* 56 (1994), 637-648쪽.
- Niditch, Susan, "Genesis," Carol A. Newsom/Sharon H. Ringe(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2).
- Nikaido, S., "Hagar and Ishmael as Literary Figures: An Intertextual Study," *VT* 51 (2001), 219-241쪽.
- Sarna, Nahum M., *Genesi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peiser, E. A., *Genesis* (AB 1), (Garden City: Doubleday, 1985).
- Sutherland, Dixon, "The Organization of the Abraham Promise Narrative," *ZAW* 95 (1983), 337-343쪽.
- Trible, Phyllis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_____, "Genesis 22: The Sacrifice of Sarah," Alice Bach (ed.), *Women in the Hebrew Bible: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9), 271-290쪽.
-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72).
- Reis, Pamela T., "Hagar Required," *JSOT* 87 (2000), 75-109쪽.
- Steinberg, Naomi,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Weems, R., *Just a Sister Away: A Womanist vision of Women's Relationships in the Bible*, (San Diego: LuraMedia, 1988).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Word, 1987).
- _____, *Genesis 16-50* (WBC 2), (Waco: Word, 1994).
- Westermann, Claus, John J. Scullion (tr.),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검색어

창세기

하갈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사라

페미니스트 비평

Is Hagar the weak or the victim?

Il Seung Chu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zation of Hagar in the book of Genesis and offer a favorable reading of the Hagar story as a corrective to the usual negative readings. Traditional critics interpreted the Hagar story as a story of intrusion, a story of Abraham who strayed from God's plan and failed to trust God's promise. Feminist critics interpreted Hagar as a victim who experiences use, abuse and rejection. The present study revisits these negative perceptions of Hagar and retells the tale of Hagar in the narrative context.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counterbalance this generally negative view of Hagar by emphasizing the full potential in Genesis for a positive and favorable reading of Hagar by examining Hagar's type-scenes, geography, and her

narrative role as Abraham's wife compared with that of Sarah. Where more positive readings of Hagar are suggested, this is not necessarily a claim that such readings are to be adopted, but rather to demonstrate that the negative interpretations are not the only option. The lack of discussion of these options in the interpretative tradition supports the argument that negative interpretations of Hagar do not originate from the depiction of Hagar in Genesis text itself but are derived from the biases of contemporary interpreters against Hagar as the obstacle to God's promise or the victim.

After the careful scrutiny of the Hagar narrative, it is concluded that Hagar is a significant and heroic character who shares narrative motifs and type-scenes with Abraham. Hagar is neither the weak nor the victim. She is an Egyptian matriarch, a woman placed among the ranks of the patriarchs, who was favored by Abraham and receives God's promise and blessings.

Keywords

Genesis

Hagar

Abraham

Isaac

Ishmael

Sarah

Feminist criticism

■투고일: 2010년 12월 23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